

###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

만19~39세 구직청년 130명...20~29일 온라인 접수



광주시는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

다. 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추가 모집인원은 130명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미취업기간·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 최종 선발한다.

추가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드림수당을 지원한다.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결과를 다음 달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김도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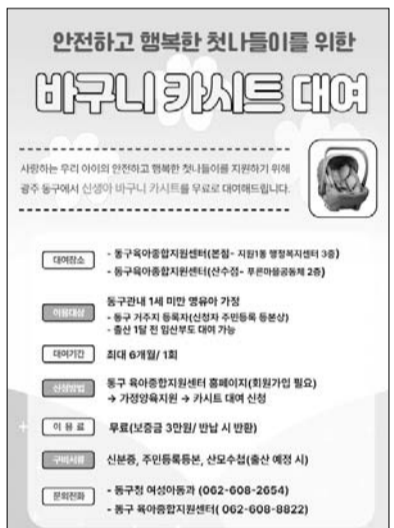
###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빌려드립니다”

동구, 출산 1개월 전~만 1세 미만 영유아 가정 대상

동구는 저출산 위기 속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는 차량 이동 시 신생아를 태울 때 반드시 필요한 육아 안전용품이다. 사용기간이 짧은 데 반해 가격 부담이 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맞춤형 출산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대여 대상은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1개월 전부터 만 1세 미만 영유아 가정이며 보증금(3만 원) 예치 시,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로 1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예약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 광주 월출교차로에 꼬마 신호등 설치

시 “현장 여건 고려 가장 낮은 신호 시설 설치”

광주 북구 월출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에 비해 키가 낮다. 이 곳 신호등은 왜 꼬마 신호등일까? 그 답은 교차로 상공에 숨어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도로 내 운전자동 신호등의 버팀목(세로형 지주)은 6m, 신호등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보통 4.5m이다.

그러나 월출교차로 내 운전자동 신호등의 버팀목 높이는 4.5m에 불과하다. 교차로 주변 보행자용 신호등의 버팀목 높이 또한 일반적 기준인 2m50cm에 미치지 못한다. 교통 안전을 고려, 별도로 설치한 세로형 운전자동 신호등의 높이도 2m 안팎이다.

이처럼 신호등 시설을 낮게 설치한 이유는 교차로 상공을 지나는 특고압 전선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011년 월출교차로 개통 당시에는 운전자동 신호등의 버팀목 높이를 6m로 했다.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신호등 제



어항 그늘림 현상이나 신호등 꺼짐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교차로 상공 특고압 전선의 영향으로 보고 개선책을 찾던 광주시는 신호등 시설의 높이를 낮추기로 결정, 현재의 높이로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호등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 여건을 최우선 반영하는 것”이라며 “교차로보다 특고압 전선 첩합이 먼저 설치돼 광주에서 가장 낮은 높이의 신호등 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순천소방, 아파트 화재 출입문 개방 ‘3명 구조’



순천소방서는 18일 0시 8분께 순천시 연향동 소재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인명구조를 최우선 지시하고, 소방차량

24대, 인원 65명을 화재현장으로 투입해, 화재 발생 2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3살 여아 등 거주자 3명을 확인하고 에어매트리스를 전개, 현관 아파트를 신속하게 개방 후 진입해 무사히 구출했다.

구조한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층간 중간 전동리프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 오염수 방류 임박, 수산시장 ‘뒤숭숭’

“손님 뚝”...안팔려 버리는 꽃게 수북

“오염수 방류하면 어시장 매출 직격탄”

“어시장 손님이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끊겼어. 방류하면 사정이 더 나빠질 텐데 정부는 뭘 한다고만 하니 많이 캄잡하네.”

지난 16일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수산물 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분위기가였다.

새벽부터 전남 완도·보성·고흥 지역에서 들어온 싱싱한 생선이 진열대에 놓여있었지만, 찾는 발걸음은 뜸했다.

한 상인은 텅 빈 장부를 바라보다 “지금도 없는데, (방류 시)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라며 몸을 일으켜 고등어 위로 앉은 파리를 쫓아냈다.

또 다른 상인은 여러 차례 호객 행위에도 구매하려는 손님이 없자, 머쓱해하며 다시 해산물을 다듬었다.

소비자들은 방류 임박을 의식하는 듯 가격보다 원산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 주부는 국내·외국산이 적힌 원산지를 번갈아 가며 살폈다. 상인이 “씨계즐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방류 전부터 국내산보다 일본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찾는 고객도 있었다.

주부 김현영(53·여)씨는 “방류 시 해양 오염이 걱정돼 수산물을 거의 안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소매를 하는 구순자(62)씨는 “코로나19때 꾸준한 소비는 있었는데 지금은 방류 앞두고 수산물 구매를 기피한다”며 “매출도 1년 전보다 반토막 났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문 닫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진열대엔 팔리지 못하고 폐사한 꽃게 10여 마리도 눈에 띄었다.

7년째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

다운(34)씨는 “올 초엔 폐기 수산물 이 매일 30 정도 나왔는데, 방류 소식 이후 손님이 줄어 폐기량이 두 배 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방류수 위험·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나 대응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남 지역 어민들도 방류에 따른 소비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영춘 여수시 돌산읍 백초어촌계장은 18일 “지역에서 잡은 생선이 광주·서울 등 여러 지역으로 팔리는데, 방류 임박 소식 이후 점차 주문량이 점차 줄고 있다”며 “방류가 본격화하면 동·남·서해 순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시교육청, 광주형 AI 교육 플랫폼 광주아이온 구축 박차

AI·빅데이터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맞춤형 성장 지원



광주아이온' 구축 TF 발대식.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AI·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AI 교육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새롭게 구축한 광주형 AI 교육 플랫폼 이름은 ‘광주아이온(AI-ON)’이다.

이는 광주 아이들을 위한,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ON),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함께 하는(ON)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광주아이온’ 구축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광주아이온 구축을 위해 국제적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활용 사례, AI 코스웨어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아이온 구축 TF에는 현장 교원,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협의를 통해 구축 방향, 타당성, 단계적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아이온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아이온 1단계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과 학습자 주도 학습, 학습자별 학습분석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단계는 학생 데이터 주권 관리, 진단·진학 연계, 자체 서비스 연결 등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기본 기술을 공동개발한다.

또 광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기초학력, 진로진학, 교육콘텐츠)는 별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현장 맞춤형 서비스 구현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순주 기자

###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서구는 오는 28일까지 18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구는 복지팀 업무 활성화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각 동에 방문해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논의하고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원방안,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통합사례관리 수행 현황 ▲찾아가는 방문 상담 실적 확인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세부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동 간 업무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동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 7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를 개최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우수사례 공유 시간을 가졌으며, 최우수 6개동과 우수동 12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서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서 3년 연속(2020~2022년) 대상을 수상, 복지 선도 지자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순천경찰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활동

순천경찰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여성 대상 물기마 폭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제도로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소다. 이는 지난 2013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순천경찰서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범죄예방팀(CPO)은 지난 2주간 CCTV, 안내표지판 등 방범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방향 개선 및 슬라드 설치 등을 완료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체 미작동 LED 안내판 및 로고젝터 보안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전남,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시설 일제점검

오늘부터 4일간...재해 우려지 300m 이내 501개소 중점점검

전남도는 올해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4일간 도내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산지 태양광 시설 3895개소 중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해 우려 지역에서 300미터 이내 위치한 501개소를 중점 점검한다.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하므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물이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과, 해상풍력산업과, 에너지공대지원과 등 에너지산업국 소속 3개 부서가 여수, 나주, 강진, 해남 등 도내 18개 시군 산지 재해에너지 담당 부서와 11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 내·외부 비탈면 토사유출 및 침식 현상 ▲옹벽 배부름 현상 및 균열

▲패널시설 하단부 식생녹화 상태 ▲발전시설 내 배수로·집수정 등 배수체계 관리상태 등이다.

특히 기존에 토사유출 등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지를 중점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대상지는 재해방지 조치명령 후 우기 전까지 이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501개소를 제외한 3400여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 토록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호기 기자

### 5·18 민주수호 쉼기대회 진행, 43년 만에 재심 ‘무죄’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김모 씨·송모 씨, 무죄 선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 쉼기대회를 열고 민주시민회보를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의 기소패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김모(64)씨와 송모(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대 국문과 4학년 재학 중인 1980년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투쟁했다.

김씨는 당시 계엄군 학살의 실상과 시민의 저항·임무 등을 담은 ‘투사회보(민주시민회보)’ 제작·배포에 함께했다. ‘투사회보’로 시민들의 5·18 진상을 명확히 파악했고, 투쟁 의지를 한 데 모았다.

김씨는 또 민주수호 범시민 쉼기대회 사회를 맡아 80만 광주시민의 결의로 군사 반란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고,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송씨도 1980년 10월 17일부터 20일 사이 헌법 개정안 반대 인내물을 제작해 광주 도심에 배포했다. 송씨는 ‘전두환은 이 땅의 민주주의에 칼을 박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김도기 기자